

CC에 있어서 宗教類 分類展開上의 諸問題

邊 宇 烈

〈公州大學校 師範大學 圖書館教育科 副教授〉

目 次

緒 論

I. CC의 宗教類 變遷 過程

II. CC의 宗教類 展開의 特性

A. 宗教共通區分 展開의 特性

B. 主類 展開의 特性

III. CC에 있어서 宗教類 展開上의 問題點

IV. 宗教類 分類表의 새로운 展開

A. 展開原則과 方法

B. 宗教類 分類表의 새로운 展開

1. 宗教共通區分

2. 宗教類 分類展開

結 論

參考文獻

緒 論

현대의 일반적인 文獻分類法 중에서 CC (Colon Classification)는 다른 전통적인 列舉式 分類表와는 다른 획기적인 분류표의 독창적인 발상과 分析合成式의 構造理論으로 인하여 높이

평가되고 있다. CC는 열거식분류표에서는 불가능한 複合主題를 多面的으로 記號化할 수 있으며, 주제를 구성하는 單位語를 facet 형태로 정리하기 때문에 表의 구성이 간결하고, 分析과 合成의 方法을 facet 公式으로 지시하고 있는 科學的인 方法을 적용한 분류표이다.

CC는 1933년에 초판이 간행된 이후 여러차례의 개정을 거쳐 1987년에 제7판을 간행하였다. CC는 분류표가 개정될 때 마다 주제항목, 새로운 기호, facet을 추가하였고, 또한 facet의 조합방식도 개선하였다. 그러나 CC는 최초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부분적인 개선과 그때 그때 학문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주제를 추가하는 細分展開圖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分類表의 構造와 전개내용과 形式 등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 각국의 모든 宗教와 학문으로서의 宗教學의 제 분야를 수용하여야 하는 宗教類 分類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CC의 경우는 複合主題도 組合하여 기호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다양한 記號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호 자체도 복잡하고, 기호의 조합방법이 복잡하여 기호의 단순성과 간결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으며, 宗教類의 分類에 있어서 印度中心으로 전개되어 있어 全世界의 모든 宗教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CC에서 宗教類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살펴 보고, 宗教類 展開上의 特性을 分析하여 問題點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새로운 分類法을 提示하고자 한다.

I. CC의 宗教類 變遷過程

CC는 S.R. Ranganathan이 기존의 DDC, UDC, LCC, SC, EC 등의 분류표들을 비교 연구한 결과 이들은 주제의 다면적 표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식구조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존의 列舉式 分類表와는 다른 원리 즉 Mecano원리를 적용하여 分析合成方式의 독특한 분류체계로 만든 것이다.

Ranganathan은 1925년 Madras대학교 도서관의 3만권이 수록된 印刷目錄에 대하여 分類記號를 부여하는 등 계속적인 연구를 거듭하여 약 1년만에 자신의 분류표가 대단히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응용하여 1927년에 시험적인 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1928-31년에는 이용자들의 반응을 조사하여 표를 수정한 후 1932년에는 분류표를 인쇄하고 드디어 1933년에 CC 초판을 간행하였다.¹⁾

CC 초판의 主類(main class)는 모두 2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配列順序는 수학, 物理學, 공학, 화학 등과 같은 自然科學(class A-M)을 앞부분에 배정하고, 예술, 문학, 語學, 종교, 哲學 등과 같은 人文學(class N-S)을 중간에, 교육, 지리, 歷史·정치학, 經濟學, 법률 등의 社會科學(class T-Z)을 뒷부분에 배열하고 있다.²⁾ 또한 共通細目(common subdivisions), 地域區

1) Krishan Kumar. *Theory of Classification*. 2nd rev. ed. (New Delhi : Vikas Publishing House, 1981), pp.52-53.

2) Geraldine Odessa Matthews. *The Influence of Ranganathan on Faceted Classification*.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1980. p.58.

分(geographical divisions), 年代區分(chronological divisions), 言語區分(language divisions) 등의 4개의 補助表가 있으며,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아라비아 숫자, colon으로 이루어지는 複合記號法(mixed notation)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콜론구분법(colon device), 지역구분법(geographical device), 연대구분법(chronological device), 近親區分法(favoured category device), 고전구분법(classic device), 알파벳구분법(alphabetic device), 주제구분법(subject device), 偏向區分法(bias number device) 등의 8가지 특수한 구분법을 사용하여 분류기호를 구성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相(phase)의 개념을 사용하였다.³⁾ CC 초판에서 宗教類는 Q(Religion)에 설정해 놓고 세분할 경우는 地理區分과 연대구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위류의 전개는 팔진기호(octave notation)와 소수기호(decimal fraction number)를 사용하고 있는데, 팔진기호법에서 同位類 내에서의 수용력을 높이기 위하여 8다음에 계속적으로 나머지 類를 나타내는 포괄적인 기호로서 9라는 숫자를 사용하였다.⁴⁾

1939년에 간행된 CC 제2판⁵⁾은 초판에서 누락된 새로운 주제를 추가하고, 처음으로 PMEST 즉, 個性(personality), 物質(matter), 에너지(enregy), 空間(space), 時間(time) 등 다섯가지 기본범주(fundamental category)의

개념을 분류의 기본원리로 적용하는 등 복합주제를 기호화할 수 있는 역동적 분류이론을 반영시켰다. 제2판은 4부 즉, 제1부 분류규칙, 제2부 分類表, 제3부 색인, 제4부 請求記號의 例로 구성되어 있으며, 印度學에 관한 주제는 다른 分類表보다 대단히 詳細하게 전개하고 있다. 제2판을 초판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⁶⁾ 제4부에서 여러사람의 제안을 수용하여 3,000여개의 풍부한 청구기호의 例示를 수록하였고, Philology를 Linguistics로, Politics를 Political Science로 개정하는 등의 용어를 현대 개념으로 바꾸었으며, 공통세구분에 약 800개의 새로운 구분을 추가하는 등 고전구분, 편향구분 등의 각 구분을 새로 전개하는 한편, 本表에 Mechanics, Veterinary Science, Ancient Tamil Poetry, Jainism, Buddhism, Judaism, Christianity, Zoroastrianism 그리고 Anthropology 등을 추가하였다.

CC 제2판에서의 宗教類는 초판과 동일하게 基本類의 Q에 배정하고 있으며, 분류패킷공식은 Q[R]:[P]로 지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R은 Religion으로서 본표상에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十進式으로 열거하고 있고, P는 Problem으로서 個性을 나타내는 것으로 역시 本表上에 열거하고 있으며, 본표 중간 중간에 지역구분, 近親區分, 연대구분을 사용하여 전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3) Krishan Kumar. *op. cit.*, p.53.

4) *Ibid.*, pp.423-424.

5) S. R.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4 parts. 2nd ed. (Madras : The Madras Library Association, 1939)

6) *Ibid.*, pp.1.15-1.16.

CC 제2판의 Religion 패킷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⁷⁾

<표 1> CC 제2판 종교류의 Religion 패킷

- 1 Hinduism
- 2 Hinduism(Post Vedic)
- 3 Jainism
- 4 Buddhism
- 5 Judaism
- 6 Christianity
- 7 Muhammadanism
- 8 Other Religions
- Universal religions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Religion 패킷은 힌두교를 먼저 배정하고 자이나교, 佛敎, 유대교, 基督教, 마호메트교(이슬람교), 기타 종교의 순으로 배정하여 印度를 중심으로 나열하고 있다. 기타 종교는 地理區分에 의해서 세분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국가에서 두개 이상의 종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近親區分과 年代區分을 이용하여 개별화하고 있다.⁸⁾ 특히 힌두교는 Veda 이전의 힌두교와 Veda 이후의 힌두교로 구분하여 2개의 綱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타 종교 다음에 보편적인 종교(universal religions)를 연대구분에 의하여 세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神知學(Theosophy)은 QM75가 된다.

다음으로 제2판의 宗教類 개성패킷을 요약하

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CC 제2판의 개성패킷

- 1 Mythology, etc.
- 2 Scripture
- 3 Theology
- 4 Religious practices
- 5 Preaching, etc.
- 6 Religious institutions
- 7 Religious sects
- 8 Heresies and persecutions

제2판의 개성패킷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에서 8까지는 종교의 각 要素들로 구성되어 KDC의 종교공통구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聖書(Sacred Books)는 古典區分法(Classic Device)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못하는 聖書(Sacred Books)는 2 아래에 文學類의 著作記號(Work Number)와 같은 방식으로 기호를 만들고 있다.⁹⁾

CC 제3판은 1950년에 편찬되었는데, 제3판에서는 기본적인 범주를 나타내기 위하여 각각의 기본류에 패킷공식을 만들었으며, 1951년에는 分析과 合成의 분류작업을 idea단계(idea plane), 언어단계(verbal plane), 기호단계(notational plane)의 3단계로 개념화시켜 분류이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1950년대에 이르러 패킷공식의 固定性(rigidity)이 점차 무너

7) *Ibid.*, pp.2.116-2.118

8) *Ibid.*, p.1.136.

9) *Ibid.*, p.1.137.

지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Ranganathan이 앞의 판들에서 예정된 패식공식의 고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임의의 패식개념을 개발함으로써¹⁰⁾ 패식순서가 分類原理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1952년에 간행된 CC 제4판¹¹⁾에 반영되어 기본류와 함께 합성주제도 미리 결정된 어떠한 패식을 갖지 않는 自由組合式 分類表(freely faceted classification)로 크게 변화 되었다.

CC 제4판에서는 앞의 판들에서 패식간의 연결부호로서 colon(:)기호만을 사용하던 것을 個性패식(P)은 comma(,)를, 물질패식(M)은 semicolon(;), 에너지패식(E)은 colon(:)을, 空間패식(S)과 時間패식(T)은 dot(.)를 사용하고 있으며, 回次(round)와 段階(level)의 개념을 도입하여 패식순서의 固定性을 없애는 등 패식을 연결하기 위한 부호 고안과 새로운 개념 도입으로 다섯가지 패식을 나타내는 PMEST공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패식과 함께 focus와 phase라는 개념을 구분법에 이용하여 앞의 판에서 8개로 구성된 구분법(device)을 9개의 구분법과 별도의 고전구분법으로 설정하여 놓았다. 앞에서 언급한 제2판에서의 8개의 구분법 중에서 colon구분법은 colon 이외에 기타 여러가지 부호가 도입됨으로써 의미가 상실되어 제외되고, 古典區分法은 별도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6개의 구분법에 새로운 진화순 구분

법(evolution order device), 조기성구분법(mnemonic device), 팔진기호법(octave device) 등의 3가지 구분법을 追加하여 모두 9개의 구분법을 두고 있어 대부분의 주제들을 매우 상세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제4판에서의 宗教類는 제2판과 비교하여 볼 때 패식공식이 Q[P]:[E]로 되어 패식의 용어가 Religion이 Personality로, Problem이 Energy로 변경된 것 이외에는 변화된 사항은 없다.

1957년에 편찬된 CC 제5판은 主類가 39개로 대폭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經營과 勞動, 농업을 비롯하여 印度의 지역구분 등에서 상당한 변경이 있었다.

1960년에 간행된 CC 제6판¹²⁾은 3년후인 1963년에 약간 수정하여 再刷版이 출판되었다. CC 제6판은 主類가 47개로 증가되는 동시에 敎育, 核物理學과 核工學 등 몇개의 主類가 개정되었으며, 主類의 명칭에 있어서 앞의 판들에서 사용하던 그리스 文字의 사용을 지양하고 모두 알파벳으로 대치하였고, 시대패식의 연결기호를 dot(.)에서 도치 콤마(,)로 변경하였다. 이외에도 Ranganathan은 CC 제6판에서 어떠한 array에서도 項目을 나타낼 수 있도록 숫자를 표시하는 팔진기호의 명칭을 색토기호(sector digit)로 바꾸었다. 한편, CC 제6판에서는 주제간의 相關係(phase relation), 동일주제의 동일

10) Krishan Kumar. *Theory of Classification*. 2nd rev. ed. (New Delhi : Vikas Publishing House, 1981), pp.424-425.

11) S. R.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4th ed. (Madras : Madras Library Association, 1952)

12) S. R.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6th ed. (New York : Asia Publishing House, 1960)

패킷 내에서의 관계를 나타내는 패킷내 상관계(intra-facet relation), 동일패킷의 array 내에서의 관계를 나타내는 array內 相關係(intra-array relation) 등을 새로 설정하였다.

CC 제6관의 宗教類 분류는 제4관과 비교하여 보면 패킷공식에 回次 개념을 도입한 2단계 個性(second level personality) 즉 2P가 추가되어 Q[P]:[E][2P]로 되었을 뿐 다른 변화는 없다.

CC 제7관은 1971년에 간행될 예정이었으나 16년이나 지연되어 1987년 8월 12일 S.R. Ranganathan 박사 제95회 生日에 발간되었다. 그것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 本表만을 출판하고, 索引은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며, 1987년에 발행된 본표는 1989년에 再刷版¹³⁾이 출판되었다. 7관은 앞의 관들에 비하여 매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合成方式의 단계로 볼때 제7관에 와서는 색토기호법의 도움으로 패킷 단계의 수와 회차 내의 패킷순서의 고정성이 거의 제거된 자유패킷 분류표(freely faceted classification)가 되었다. 제7관 제1권 本表의 구성은 Part A—introduction ; Part B—guidance to the beginner; Part C—general rules ; Part D—general divisions and common isolates ; Part E—special isolates 등의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主類가 약 800개로 세분화되어 학문의

分化와 增加를 잘 반영하고 있다.¹⁴⁾

CC 제7관의 宗教類 分類를 제6관과 비교해 보면 기본패킷의 배열은 거의 변화가 없이 [P]와 [MP] 모두 전통적인 基本主題를 고수하고 있고, 패킷공식은 물질패킷(Matter Facet[M])이 물질특성패킷(Matter Property Facet [MP]), 물질방법패킷(Matter Method Facet [MM]), 물질재료패킷(Matter Material Facet [MMT]) 등 3가지로 분화되었다. 그리고 제7관의 종교류 패킷공식은 Q,[1P1];[1MP1]으로 제6관과는 달리 1 회차 또는 1 단계라도 그 관계를 표시해 주고 있는데, 에너지패킷[E]의 분류항목들은 모두 물질특성패킷[MP]에 포함되고, 에너지패킷은 별도로 나열하지 않고 공통 에너지 구분표(Common Energy Isolates)에 따라 세분하도록 하고 있어, 제6관의 패킷공식 Q[P]:[E][2P]와 비교해 보면 용어와 연결기호만 변경되었을 뿐이다. 즉, 기본류(Main Focus)와 [1P1] 사이에 콤마(,)가 삽입되었고, 물질패킷은 semicolon(;)으로 연결하도록 하여 이전의 모든 에너지패킷[E]들은 전반적으로 [MP]패킷으로 전환되었다.

13) S. R.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Vol.1 : Schedules for Classification*. 7th ed. (Basic and Depth Version) revised and edited by M.A. Gopinath. (Bangalore : Sarada Ranganathan Endowment for Library Science, 1987)(2nd reprint, 1989)

14) M. P. Satija. A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7th Edition(1987) of the Colon Classification.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12, No.2(Winter 1990), p.126.

II. CC의 宗教類 展開의 特性

A. 宗教共通區分 展開의 特性

CC에서는 종교공통구분을 별도로 지정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은 없으나 종교의 특성구분(property isolates)이 공통구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CC의 종교공통구분을 살펴 보기 위하여 공통구분에 해당하는 종교 特性區分을 요약해 보면 <표 3>과 같다.¹⁵⁾

<표 3> CC의 종교 特性區分 요약

- Mythology
- Sacred work (Scripture)
 - Sayings
 - Tradition
- Theology
 - God
 - Angel and Devil
 - Founder of religion
 - Man, Soul
 - Salvation
 - Eschatology
- Religious practice
 - Personal religious practice
 - Sacrament
 - Holy day
 - Didactic
 - Public religious practice
- Social religious practice
 - Preaching

- Sermon
- Pastoral visitation
- Society for parish work
- Religious institution
 - Religion and its relation to other institutions
 - Ecclesiastical polity
 - Mission
 - Monastic order
 - Religious association
- Religious sect
- Heresy

CC의 종교 特性區分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종교의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신화, 聖典(성경), 신학, 神, 종교의식, 사회적 종교의식, 종교단체, 敎派, 異敎 등의 8개로 구분하고 있다. CC의 종교 특성구분을 DDC의 종교공통구분과 비교해 보면 종교의식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異敎를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B. 主類 展開의 特性

CC 제7판의 종교류는 기본류 Q에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1933년에 간행된 초판에서부터 제7판까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제7판의 패킷공식 Q,[1P1];[1MP1]을 근거로 하여 宗教類 전체 상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5) S. R.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Vol.1 : Schedules for Classification*. 7th ed.(Basic and Depth Version). revised and edited by M. A. Gopinath. Bangalore, Sarada Ranganathan Endowment for Library Science, 1987(2nd reprint, 1989), pp.256-257.

먼저, Q는 主類의 하나인 宗教를 나타내는 기호이며, [1P1]은 종교구분으로서 각각의 종교로 세분되어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표 4> CC 제7판의 종교류 [1P1] 요약

- 1 Hinduism, Vedic religion
- 11 Rigvedic religion
- 12 Yajur Vedic religion
- 13 Sama Vedic religion
- 14 Atharva Vedic religion
- 2 Hinduism, Post Vedic religion
- 21 Smartaism
- 22 Vaisnavism
- 23 Saivison
- 24 Ganapatysim
- 25 Saktatism
- 26 Sanmukaism
- 27 Sauraism
- 28 Others
- 3 Jainism
- *31 Svetambara
- 32 Digambara
- 4 Buddhism
- 41 Hinayana
- 42 Mahayana (Indian and general) Religion
- 43 Lamaism (Mahayana, Tibet)
- 44 Mahayana (China)
- 45 Mahayana (Japan)
- 5 Judaism
- 51 Palestine
- 52 Babylonian

- 58 Zionist
- 6 Christianity
- 61 Early church
- 62 Roman Catholic Religion
- 63 Protestant Religion
- 64 Presbyterian Religion
- 65 Puritan Religion
- 66 Quaker Religion
- 68 Others by (CD)
- 7 Islam
- 71 Sunni Religion
- 72 Shi-ah Religion
- 73 Musazilite Religion
- 77 Wahabi Religion
- 78 Division by (CD)
- 8 Other Religions
- Divisions by (GD) and by (CD)
- (Illustrative)
- 8411 Pre-confucianism
- 8412 Confucianism
- 8413 Lao-Tseism. Taoism
- 8421 Shintoism
- 8441 Sikhism
- 8451 Zoroastrianism
- 8452 Manichaeism
- A Universal Religion
- To be individualised by (CD)
- (Illustrative)
- M Theosophy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 제7판의 宗教區分은 힌두교를 맨앞에 두고, 자이나교, 佛

敎, 유대교, 基督教, 이슬람교, 其他宗教의 순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힌두교는 8개의 綱중에서 2개의 綱을 배정하여 베다종교와 베다이후의 종교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어 인도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CC 제7판의 종교구분은 연대순(Later-in-Time)의 원리를 따르고 있으나,¹⁶⁾ 일부 사람들은 종교의 분류가 印度文化圈에 적합하도록 편성되어 있어 서구문화권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非難하고 있다.¹⁷⁾

그리고, 기타종교는 地理區分과 年代區分에 의하여 細分하도록 하고 있는데, 本表에서는 儒敎, 도교, 神道, 시크교, 조로아스터교, 摩尼敎 등의 순서로 나열하고 있다. 또한, 토테미즘과 같은 原始宗教는 사회학(Sociology) 아래의 symbolism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종교와 관련된 사회의식(social practice) 역시 사회학 아래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CC 제7판의 宗教類 전개는 종교의 학문적 체계를 무시하고 인도중심의 전개를 하고 있어 東洋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西歐의 관점에서도 수용할 수 없는 전개를 하고 있다.

다음으로, [1MP1]은 제6판에서의 [E]와 [2P]에 해당하는 항목들로서 종교의 각종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을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표 5> CC 제7판의 종교류 [1MP1]의 요약

1 Mythology

- 2 Sacred work(Scripture)
- 25 Sayings
- 26 Tradition
 - Subdivisions for '1 Hinduism, Vedic'
- 21 Samhita
- 22 Brahmana
- 23 Aranyaka
- 24 Upanishad
 - Subdivisions for '2 Hinduism, Post-vedic'
- 21 Relevant selection from Veda
- 22 Relevant selection from Purana
- 23 Samhita. Agama. Tantra
- 24 Upanisad
- 3 Theology
- 31 God
- 32 Angel and Devil
- 33 Founder of religion
- 34 Man. Soul
- 35 Salvation
- 36 Eschatology
- 37 Universe
- 38 Sthala (local) purana
- 396 Revelation
- 4 Religious practice
 - 41 Personal religious practice
 - 42 Sacrament
 - 43 Holy day
 - 44 Didactic
 - 45 Public religious practice

16) S. R. Ranganathan.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3rd ed. New (York : Asia Publishing House, 1967), p.184.

17) 板寺一太郎. コロン分類法の特徴とその批判. 大學圖書館研究, 1 (1972. 12), p.52.

- 5 Social religious practice
- 51 Preaching
- 52 Sermon
- 53 Pastoral visitation
- 57 Society for parish work
- 6 Religious institution
- 61 Religion and its relation to other institutions
- 62 Ecclesiastical policy
- 65 Mission
- 67 Monastic order
- 68 Religious association
- 7 Religious sect
- 8 Heresy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MP1]은 종교의 특성구분(property isolates)으로서 神話, 성경, 神學, 종교의식, 사회적 종교의식, 종교단체, 종교의 敎派, 異敎(heres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KDC에서 종교공통구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교구분과 세미콜론(;)으로 연결하여 세분하게 된다. 이러한 종교의 특성구분도 2의 성경, 4의 종교의식 등에서 보면 힌두교를 세분하기 위하여 베다종교로서의 힌두교와 베다이후의 힌두교로 구분하는 등 힌두교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2에 있는 聖經은 각 종교에 따라서 세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종교의 고전을 구분하기

위하여 Ranganathan이 고전구분법(classic device)을 CC 제=6관의 제3부에서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다. 古典區分法은 Ranganathan이 Madras 대학도서관에서 분류해야 할 印度의 古典이 너무 많아서 原典과 批評書를 함께 모우기 위하여 창안한 것이다. 이것은 원래 CC 제1판에서 처음으로 수록되어 있던 것으로 S. Kuppaswami Sastria 교수의 도움으로 완성되었다.¹⁸⁾ 제7판에서는 아직 수록되지 않고 있으나 완성되면 2,000개의 고전 분류표가 수록될 것이다.¹⁹⁾

III. CC에 있어서 宗教類 展開上의 問題點

CC는 힌두교에 중점을 두고 전개하고 있어 인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 본 CC의 宗教類 변천과정 및 전개상황을 기초로 하여, 최신판인 CC 제7판의 종교류 전개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류 형성의 기본 골격이 되는 종교구분의 전개에 있어서 전체 8개의 구분 중 힌두교에 2개의 항목을 부여하고 있고, 儒敎, 도교, 神道, 조로아스터교 등의 東洋圈의 종교는 기타에 배정하고 있으며, 종교의 특성구분에서도 힌두교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등의 印度中心으로 전개하고 있다. DDC와 LCC가 美國中心, 西歐中心으로 전개하여 서구문화권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는 데 반해, CC는 인도중심으로 전개되어

18) M. P. Satija. *Colon Classification(7th ed.) : a practical introduction.* (New Delhi : Ess Ess Publications, 1989), p.67.

19) *Loc. cit.*

있어 동양문화권에도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구문화권에도 적합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둘째, CC는 종교의 일반적 분류체계인 有史以前의 宗教, 원시종교, 古代宗教, 근대종교, 世界宗教의 순서를 무시하고, 단순히 연대순(Later-in-Time)의 원리에 따라 힌두교, 자이나교, 佛敎, 유대교, 基督教, 이슬람교의 순으로 항목을 배열하고 있으며, 토테미즘 등과 같은 원시종교는 社會學 아래에 항목을 배정하는 등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CC는 19세기 後半에 성립되어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宗敎學의 각 분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CC는 複合主題와 混合主題를 역동적으로 기호화할 수 있고, 새로운 주제의 발생에 능동적으로 對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학문으로서의 종교학의 제분야 즉, 宗敎史學, 종교인류학, 宗敎社會學, 종교심리학, 종교철학, 종교문학, 宗敎現象學, 종교생태학, 비교종교학 등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圖書館의 분류표는 學問分類에 기초하여 발달해 왔고, 학문의 발달을 계속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CC 역시 학문으로서의 종교학의 諸分科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종교구분의 전개에 있어서 基數記號를 8개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어 세계 각국의 제종교를 모두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8개의 기수기호 중 2개는 힌두교에 배정하고 나머지 6개를 가지고 세계의 모든 종교를 세

분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경우 분류기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儒敎는 8412로서 4자리가 된다. 따라서 동양권 국가 중 우리나라나 日本의 경우 CC를 채택하여 종교류 문헌을 분류하고자 하면 새로운 전개가 불가피하므로 종교구분을 위한 기수기호의 숫자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CC 전체에 관련된 문제로서 分類表의 구조와 用語 그리고 記號法 등의 변화가 빈번하여 이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른 분류표에 비하여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CC의 改訂은 새로운 주제와 복합주제의 細分化 등을 위하여 분류표의 성격과 구조를 개선하였으나, 합성을 위한 구분법과 패식공식의 변화, 그리고 多樣하고 복잡한 기호의 追加 등으로 인하여 분류기호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다. 그 결과 CC를 채택하고 있는 도서관의 수가 印度 내에서는 2,500 여개에 이르지만, 外國에서는 소수의 도서관만이 CC를 채택하고 있다.²⁰⁾ 또한 분류기호의 배열에 있어서 각 기호간의 배열의 우선순위를 인식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기호법으로 다면적 분류는 가능하지만 지나친 기호의 組合으로 인하여 기호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성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면적인 요소들을 조합된 여러가지 종류의 기호로서 계속해서 합성하여 기호가 대단히 길어져 書架分類에서는 배열이나 檢索, spine작업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²¹⁾ 이

20) Krishan Kumar. *Theory of Classification*. 2nd rev. ed. (New Delhi : Vikas Publishing House, 1981), p. 389.

러한 다양한 주제를 가진 文獻은 분류기호를 가지고 모든것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목록과의 相助性(symbiosis)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²²⁾

이상에서 살펴 본 CC의 宗教類 전개상의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교류의 전개가 힌두교 위주의 印度中心으로 전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의 종교간에 對等性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의 경우 분류기호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도외시되고 있다. 또한 宗教類의 展開에 있어서 종교류의 일반 分類原則이 무시된 채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학문으로서의 宗敎學의 제분야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宗教共通區分은 힌두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기타의 종교에 대해서는 조기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IV. 宗教類 分類表의 새로운 展開

A. 展開原則과 方法

앞에서 살펴 본 宗教와 宗敎學의 분류를 기초

로 주요 분류법에서 종교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표의 편성원칙과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分類記號가 가져야 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왜냐 하면 분류항목과 分類記號는 상호 관련성이 밀접하기 때문에 문헌분류법의 체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이기 때문이다. Ranganathan,²³⁾ Bliss,²⁴⁾ Coates,²⁵⁾ Maltby²⁶⁾ 등의 제학자들이 제시한 分類記號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종합해 보면 ①簡潔性, ②단순성, ③助記性, ④신축성, ⑤국제적 通用性, ⑥순서의 명확성 등을 들 수 있는데, 분류기호는 이러한 요건들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국제적 一般分類法이라면 문자나 숫자중에서 어느 것이던 그것이 국제적 통용성이 있어야 하는데, 東洋의 漢字나 한글, 日本의 가나 등은 국제적 통용성이 적으며, 漢文의 숫자나 로마숫자 등은 우선 글자의 모양에서도 기호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러한 점에서 문자로서는 알파벳문자가 이와 같은 요건에 가장 알맞고, 숫자로서는 아라비아숫자가 가장 알맞다고 볼 수 있다. 그

21) 板寺一太郎. コロン分類法の特徴とその批判. 大學圖書館研究, 1 (1972.12), p.52.

22) 정필모. 文獻分類論 (서울 : 九美貿易, 1991), p.61.

23) S. R. Ranganathan.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3rd ed. (New York : Asia Publishing House, 1967), pp. 40-41.

24) Henry Evelyn Bliss.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in Libraries and the Subject-Approach to Books*. 2nd ed. (New York : H. W. Wilson, 1939), pp.70-71.

25) E. J. Coates. Notation in Classificatio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tudy Conference on Classification for Information Retrieval, Dorking, 1957*. (London : Aslib, 1957), pp.51-64 (이재철.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한글의 기호삼기 문제에 대하여 : 기호의 요건과 음절식 기호법(syllabic notation)의 원리에 입각한 고찰. 人文科學(延世大學校), 第24·25輯 (1971. 5), p.224에서 再引用)

26) Arthur Maltby. *Sayers'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es*. 5th ed. (London : Andre Deutsch, 1975), p.74.

러나 이들 중에서도 분류기호의 요건에 알맞은 것은 알파벳문자 하나의 文字와 아라비아숫자를 혼용하는 편이 더 좋고, 그 보다도 아라비아숫자만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된다.²⁷⁾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아라비아숫자만을 사용하여 분류기호를 전개하도록 한다.

둘째, CC의 宗教類 분류전개를 살펴 본 결과 한정된 분류항목으로 인하여 세계의 모든 종교와 學問으로서의 宗教學의 諸分科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특정 종교의 경우 분류기호의 길이가 길어져 대등성, 간결성 등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분류기호를 신축성도 있으면서 간결성과 단순성을 골고루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主類의 範圍를 넓히고, 계층성보다는 序數的 均일성과 대등성을 강조하여 실용성을 살리기 위하여 아라비아숫자에 의한 百區分의 기호체계로 편성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적 통용성과 배열 순서상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19세기 후반에 성립되어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종교학의 제분야를 수용하는 것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 본 CC의 종교류 분류전개에서는 학문으로서의 종교학의 제분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宗教學은 인간의 宗教現象 즉, 종교의 發生, 발전, 기능 그리고 조직 등을 연구하며 종교의 本質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입장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종교학도 다른 학문분야와 마찬가지로 대략 1세기 전에 胎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므로 그렇게

짧은 역사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종교가 인간간의 신념체계를 다루는 것이어서 偏見과 獨善을 가지고 특정 민족이나 지역의 관점에서만 다루게 되고, 종교경험 내용의 주관적 성격과 규범적 특성때문에 종교연구의 客觀性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출발에서부터 종교의 普遍性和 연구태도의 객관성을 강조한 종교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특정 종교의 연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종교학의 제분야 즉, 宗教史學, 종교인류학, 宗教社會學, 종교심리학, 宗教哲學, 종교문학, 宗教現象學, 종교생태학, 比較宗教學 등을 모두 수용하도록 한다.

넷째, 종교의 전개는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종교분류 원칙에 따르도록 한다. CC의 경우 종교의 일반 분류원칙을 무시하고 印度中心으로 종교를 전개하고 있고, 소수민족의 종교는 무시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미 CC는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는 評價를 받고 있으나 동양권, 특히 韓國이나 日本에서 CC를 적용하고자 하면 새로운 전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모든 종교를 대등하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일반 분류원칙 즉 原始宗教, 고대종교, 近代宗教, 세계종교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 하면 이러한 순서는 시간적인 전개에 따른 것이지만 가치중립적이며, 종교의 구성요소를 다원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얻어진 類型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類型과 유사한 것으로서 Smith가 종교를 학문으로서 체계적으로

27) 정필모. 百進分類法設計. 圖書館學, 第二十輯(1991. 6), pp.42-43.

분석한 것²⁸⁾을 기초로 종교류를 전개하기로 한다. 이것은 시간적인 전개아래 文化段階, 역사적 시대, 世界地域으로 구분하여 종교를 전개하고 있다.

다섯째,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종교공통구분을 운영하도록 한다. CC는 종교의 특성구분에서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성구분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도의 힌두교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각각의 종교마다 보조표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표준적인 종교공통구분표를 편성하여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表의 分量도 간소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대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 종교공통구분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로서 하여금 분류기호의 결정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助記性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宗教類 分類表는 국제적 통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개하여, DDC, LCC 및 CC 등 어떠한 분류표에 직접 적용해도 무리가 없도록 한다. 종교류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記號의 배정은 종교류를 전부 순서적으로 전개하는데 한자리 수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두자리 수로 전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下位類의 展開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한자리 수로 가능하기 때문에 한자리 수로 전개하도록 한다.

B. 宗教類 分類表의 새로운 展開

1. 宗教共通區分

종교공통구분은 각 종교가 內包하고 있는 공통 개념들의 형식을 일정한 기호로 정하여 宗教類 내에서 적용하는 공통구분으로, DDC, LCC, CC, NDC, KDC 등의 분류표가 각기 어떤 形式이나 記號法 그리고 운용방법 등의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종교공통구분을 운용하고 있다.

DDC, NDC, KDC, LCC, CC의 종교공통구분을 基礎로 하여,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宗教共通區分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들 분류표에서 제시된 공통적인 요소를 적출하여 보면 ①敎理 ②종교창시자 ③經典 ④설교집 ⑤宣敎, 布敎 ⑥조직 ⑦儀式 ⑧종교생활 ⑨敎派, 宗派 등의 사항들을 나열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를 세계의 5대 종교 즉, 힌두교, 佛敎, 유대교, 基督教, 이슬람교의 구성요소와 비교하기 위하여 DDC, LCC 그리고 종교 이론서²⁹⁾를 參考資料로 하여 조사하여 보면 각 종교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만, 경전과 교파부분만 각 종교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本表에서 각각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宗教共通區分の 展開順序는 종교현

28) Wilfred Cantwell Smith. Religion. in *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 Propedia: outline of knowledge and guide to the Britannica*. 15th ed. (Chicago: Encyclopedia Britannica, 1983), pp.498-559.

29) 朴異汶. 宗教란 무엇인가: 宗教哲學 (서울: 一潮閣, 1985); 임학산. 불교와 기독교의 진리비교 (서울: 진영사, 1991); 한국종교연구회. 세계종교사입문 (서울: 청년사, 1989); 黃善明. 宗教學概論 (서울: 종로서적, 1982); Joachim Wach. *The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8); John B. Noss. *Man's Religions*. 6th ed. (New York: Macmillan, 1979)

상의 제 형태 즉, 宗教思想, 宗教行爲, 聖과 俗, 그리고 神觀, 人間觀, 세계관으로 한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현상학적인 방법적 성찰을 통해서 얻어진 순서는 아니지만 종교의 現象과 형태의 구조 및 의미를 이해하려고 할때 흔히 서술하는 방법이다.³⁰⁾

따라서 本考에서의 宗教共通區分에서는 종교의 상부구조 즉, 종교사상에 해당하는 敎理, 종교창시자, 경전, 설교집, 조직, 교단을 먼저 배열하고, 다음으로 종교행위에 해당하는 儀禮, 祈禱, 수행 등의 종교생활을 배열한 다음 마지막으로 선교, 布教 및 교과와 종과의 순서로 배열한다. 그리고 Doctrines. Creeds(敎理, 敎義) 아래의 내용들은 종교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계층성을 무시하였다. 예를 들면, eschatology(종말론)는 cosmology(우주론)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salvation(구원론)은 humankind(인간론)의 하위개념이다. 여기에서 계층성을 존중하여 기호를 배정하면 종교공통구분의 기호가 길어지기 때문에 기호의 간결성을 중시하여 분류 기호 합성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상의 전개 원칙에 따라 새로운 종교공통구분을 표형식으로 나타내면 <표 6>과 같다.

<표 6> 새로운 宗教共通區分

-10 Doctrines. Creeds

11 Objects of worship and veneration

121 God, divinities.

123 Nature

125 Persons

127 Angel and Devil

13 Humankind

15 Salvation

17 Eschatology

18 Creation and cosmology

19 Revelation

-20 Founder of religion

21 Consecrated saint

25 Leaders

-30 Sacred books(Collected works)

31 Separate works

34 Scripture catalog

35 Traditions

36 Laws and decisions

37 Criticism, commentary

39 Concordances. Dictionaries. Indexes. Terminology

-40 Maxims, Sermons

43 Address, essays, lectures, etc.

45 Questions and answer

-50 Organization, Government, Ministry

52 Organization

54 Government

56 Ministry

58 Religious association

-60 Liturgy and ritual

61 Sacraments

63 Expiation

64 Confirmation

30) 黃善明. 宗敎學概論 (서울: 종로서적, 1982), p.77.

- 65 Devotion
- 66 Anniversary rite
- 67 Marriage
- 68 Obsequies
- 69 Pilgrimage
- 70 Religious practice
- 71 Worship
- 712 Offerings
- 714 Sacred places
- 715 Sacred times
- 716 Sacred songs
- 718 Holy water
- 73 Prayer
- 74 Penance
- 75 Ascetic practice. Fast. Vigil
- 76 Festival
- 77 Monkhoo. Nun
- 79 Benevolent work. Social work. Missionary work
- 80 Preaching, mission
- 81 Religious training and education

- 83 Religious study and research
- 85 Pastoral visitation
- 88 Religious persecution
- 90 Denominations, sects
- 98 Reform movements

2. 宗教類 分類展開

바로 前項에서 제시한 종교류 分類展開 원칙을 전제로 하고, DDC, LCC, CC, BC, NDC, KDC 등의 기존분류표와 Smart³¹⁾, Smith³²⁾, Partin³³⁾, Cain³⁴⁾, Wach³⁵⁾, 채필근³⁶⁾, 진현³⁷⁾ 등 종교학자들의 이론서와 종교의 분류에 대한 일반화 된 자료³⁸⁾를 참고자료로 하여 宗教類를 새로이 전개하고자 한다.

展開 順序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구성요소, 즉 比較宗敎學의 연구대상이되는 종교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Wach의 연구³⁹⁾를 중심으로 적출하여 배정한다.

② 학문으로서의 宗敎學의 諸 分科 즉 종교사

-
- 31) Ninian Smart. Religion, Study of. in *The Encyclopedia Britannica. Macropedia*. 15th ed. Vol.15. (Chicago : Encyclopedia Britannica, 1983), pp.613-628.
 - 32) Wilfred Cantwell Smith. Religion. in *The New Encyclopedia of Britannica. Propedeia : Outline of knowledge*. 15th ed. (Chicago : Encyclopedia Britannica, 1983), pp.517-559.
 - 33) Harry B. Partin. Classification of Religions. in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Vol.3. (New York : Macmillan, 1987), pp.528-530.
 - 34) Seymour Cain. Study of Religion : History of Study. in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Vol.14. (New York : Macmillan, 1987), pp.64-83.
 - 35) Joachim Wach. *The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8.
 - 36) 채필근. 비교종교론. 개정판.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2)
 - 37) 진현. 종교의 분류. 新人間, 제373호 (1979. 12), pp.50-53.
 - 38) 世界の宗教と經典.(東京 : 自由國民社, 1990) ; 宗敎學辭典.(東京 : 東京大學 出版會, 1973) ; 김정현. 세계종교사전. (서울 : 종로서적, 1989) ; 한국종교 사회연구소. 한국종교문화사전.(서울 : 집문당, 1991)
 - 39) Joachim Wach. *The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8)

학, 종교인류학, 종교사회학, 종교심리학, 종교철학, 종교현상학, 종교생태학, 비교종교학 등을 배정한다. 그리고 각 종교내의 학문영역 예를 들면, 基督教哲學, 불교현상학 등은 本表에서 각 종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분석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이어서 종교의 일반적인 분류 원칙에 따라 유사이전의 종교, 원시종교, 고대종교, 근대종교, 세계종교의 순으로 전개한다. 각각의 종교 아래에서는 Smith가 분석한 종교전개 순서가⁴⁰⁾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초로 하되, Eliade가 概觀한⁴¹⁾ 세계 각국의 제 종교를 참고로 하여 세분전개 하였다. 그리고 근대종교와 세계종교의 전개순서는 연대순⁴²⁾ 즉 힌두교, 불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순서에 따르도록 하되, 발생지역이 같은 것은 같이 모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④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의 종교인 Marx와 Lenin의 종교사상을 전개한다. Marx와 Lenin의 종교이론은 종교의 일반적인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산권 국가의 분류법에는 Marx와 Lenin의 종교사상을 종교류 전개의 제일 앞 부

분에 배정하여⁴³⁾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제 종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⑤ 마지막으로 세계각국의 신흥종교를 배정한다. 신흥종교의 전개순서는 이미 연구가 이루어진 새로운 지리구분법에⁴⁴⁾ 따른다.

이상과 같은 원칙에 따라서 종교류의 새로운 전개를 표로 나타내면 <표 7>과 같다.

<표 7> 宗教類의 새로운 展開表

| | |
|----------|------------------|
| Religion | |
| 10 | |
| 11 | General |
| 12 | Concepts of God |
| 12.1 | Pantheism |
| 12.2 | Theism |
| 12.3 | Monotheism |
| 12.4 | Dualism |
| 12.5 | Polytheism |
| 12.6 | Deism |
| 12.7 | Atheism |
| 13 | Cosmology |
| 13.1 | Origin of cosmos |
| 13.3 | Emanation |

40) Wilfred Cantwell Smith. Religion. in *The New Encyclopedia of Britannica. Propedia : Outline of Knowledge*. 15th ed. (Chicago : Encyclopedia Britannica, 1983), pp.517-559.

41) Mircea Eliade. Synoptic Outline of Contents : I, The Religions. in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Vol.16. (New York : Macmillan, 1987), pp.97-119.

42) S. R. Ranganathan.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3rd ed. (New York : Asia Publishing House, 1967), p.184.

43) 中國人民大學圖書館集體. 圖書分類法. (北京 :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71), p.21과 佐. エヌ. アンバルイツミン. ソビエト大衆圖書館用圖書分類表. 近野チウ 譯. 第三版. 1970. p.12에 보면 Marx와 Lenin의 종교론을 종교류의 가장 처음에 배정하고 있다.

44) 李昌洙. 歷史 및 地理類에 대한 組合式分類表의 展開.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서울, 中央大學校 大學院, 1992. pp.158-160.

- 13.5 Emergence
- 13.7 Cosmic order
- 13.9 Eschatology
- 14 Humankind
- 14.1 Creation and evolution
- 14.3 Body
- 14.4 Soul(靈魂)
- 14.5 Spirit(精靈)
- 14.6 Good and evil
- 14.8 Salvation
- 15 Cult
- 15.1 Devotion
- 15.3 Service
- 15.5 Sacraments
- 15.7 prayer
- 16 Ethics
- 17 Religious group
- 17.1 Constitution
- 17.4 Organization
- 17.5 Denominations, sects
- 18
- 19 Others
- 19.1 Prophecy, divination
- 19.3 New thought
- 20 Science of religion
- 20.1 History of religion
- 20.2 Anthropology of religion
- 20.3 Sociology of religion
- 20.4 Psychology of religion
- 20.5 Philosophy of religion
- 20.6 Phenomenology of religion
- 20.7 Ecology of religion
- 20.8 Comparative religion
- 20.9 Religion and other special subjects
- 21 Prehistoric religion
- 21.1 Burial customs and cults of the dead
- 21.2 Cannibalism
- 21.3 Sacrifices : human, animal and other offerings
- 21.4 Hunting rites and animal cults
- 21.5 Female fertility deities
- 21.6 Shamanism, sorcery and magic
- 22 Primitive religion
- 22.1 Animism, Animatism
- 22.3 Worship or veneration : animal cults, tree cults, ancestor, Kings, heroes
- 22.5 Totemism
- 22.7 Asceticism, shamanism, divination
- 23 Religions of ancient peoples
- 24 Religions of the ancient Near Eastern peoples
- 24.1 Mesopotamian religions
- 24.3 Egyptian religion
- 24.5 Religions of the ancient peoples of Asia Minor
- 24.7 Syrian and Palestinian religions
- 24.9 Religions in the Arabian Peninsula
- 25 Religions of the Iranian peoples
- 25.1 Early Indo-Iranian religion
- 25.3 The cult of Ahura Mazda(Mazdaism(拜火教))
- 25.5 Mithraism
- 25.7 Zurvanism
- 25.9 Mardukism

- 26 Greek religion
- 27 Roman religion
- 28 Religions of the Hellenistic world
- 28.1 Mystery religion
- 28.2 Gnosticism
- 28.3 Manichaeism(摩尼教)
- 28.4 Quasi-scientific and magical cults
- 29 Religions of the early peoples of eastern and central Europe
- 29.1 Scythian religion
- 29.3 Religions of the Sarmatians and associated peoples
- 29.5 Religion of the pre-Christian Slavic peoples
- 29.7 Religion of Scandinavian
- 30
- 31 Religions of the ancient Celtic and Germanic peoples
- 32 Religion of the Celts
- 32.1 Druidism
- 33 Religion of the Germanic peoples
- 34 Religions of the early peoples of north-eastern Europe
- 34.1 Religion of the Baltic peoples
- 34.3 Religion of the Finno-Ugric peoples
- 34.5 Religion of the Samoyed
- 35 Religions of the Indo-European
- 35.1 Thracian religion
- 35.3 Geto-Dacian religion
- 36 Religion of the Ural-Altaic, North and Central Asia
- 36.1 Tibetan religion
- 36.2 Bon
- 36.3 Turkestan religion
- 36.4 Turkic religion
- 36.5 Mongol religion
- 36.7 Tunguz religion
- 37 Religions of the Inner Asian
- 38 Religions the of pre-Columbian American civilizations
- 38.1 Inca religion
- 38.3 Mayan religion
- 38.5 Aztec religion
- 39 Religion of the black african and black descent
- 39.1 Central Bantu religion
- 39.3 East African religion
- 39.5 Southern African religion
- 39.7 West African religion
- 40
- 41 Religion of the North American native
- 42 Religion of the South American native
- 43 Religion of the Afro-American
- 44 Religion of the Australonesian
- 45 Religion of the Oceanic
- 45.1 Melanesian religion
- 45.3 Micronesian religion
- 45.7 Polynesian religion
- 46 Religion of the Arctic
- 47 Religion of the other ethnic
- 48
- 49
- 50
- 51 Hindusim and other religions of India

| | | |
|----|---|--|
| 52 | Hinduism : Brahmanism | 84 |
| 53 | Saiva(시바교) | 85 |
| 54 | Sakta(舍支教) | 86 ^f New religions and modern movements |
| 55 | Jainism | 87 New religion of Europe |
| 56 | Sikhism | 87.1 World-rejecting movements |
| 57 | Parseeism : Zoroastrianism : Mazdaism | 87.11 People's Temple |
| 58 | | 87.2 World-affirming movements |
| 59 | | 87.21 Human potential groups |
| 60 | | 87.3 World accommodating movements |
| 61 | Buddhism | 88 New religion of Asia |
| 62 | | 88.2 Korea |
| 63 | | 88.21 Chondoism(天道教) |
| 64 | Indigenous religions of the East Asia | 88.22 Dankunism(檀君教, 大宗教) |
| 65 | Confucianism(儒教) | 88.23 Jeungsando(甌山道) |
| 66 | Taoism(道教) | 88.24 Ilkwando(一貫道) |
| 67 | Shintoism(神道) | 88.25 Songdokdo(聖德道) |
| 68 | Caodaism(高大教) | 88.26 Hanolkyo(한얼교) |
| 69 | | 88.3 Japan |
| 70 | | 88.31 Kurozumikyo(黑住教) |
| 71 | Judaism | 88.32 Tenrikyo(天理教) |
| 72 | Christianity | 88.33 Konkokyo(金光教) |
| 73 | | 88.34 Omoto(大本) |
| 74 | | 88.35 Seicho no ie(生長の家) |
| 75 | | 88.36 Sekai-kyuseikyo(世界救世教) |
| 76 | Islam : Mohammedanism | 88.37 Perfect Liberty Kyodan(PL 教壇) |
| 77 | Babism | 88.38 Nichiren group(日蓮 團體) |
| 78 | Bahaim | 88.39 Soka Gakkai(創價學會) |
| 79 | | 88.41 Reiyukai(靈友會) |
| 80 | | 88.42 Rissho Koseikai(立正 成會) |
| 81 | Religious doctrines of the Marx and Lenin | 88.5 Indonesia |
| 82 | | 88.51 Subud |
| 83 | | 89 New religion of North America |

- 89.3 United States
- 89.31 Theosophy(神知學)
- 89.32 Anthroposophy(人知學)
- 89.33 Scientology
- 89.34 est(Erhard Seminars Training)
- 89.35 ISKCON(International Society for Krishna Consciousness)
- 89.36 Arica
- 90
- 91 New religion of South America
- 92 New religion of Africa
- 93 New religion of Oceania
- 94 New religion of Polar regions
- 95 New religion of Others

이상에서 제시한 새로운 宗教共通區分과 宗教類 分類表의 새로운 전개는 DDC, UDC, KDC, LCC, CC 등 세계 주요 분류표에 宗教類의 類番號만 맨 앞에 첨가하고, 각각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전개하면 직접 적용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DDC, UDC, KDC의 경우는 각각 종교의 類番號 2를 앞에 첨가하면 된다. 즉, 불교는 261, 기독교는 272가 된다. 그리고 LCC의 경우는 BL을 첨가하여 불교는 BL61, 기독교는 BL72로 적용하면 된다. 다음으로, CC의 경우는 종교를 나타내는 類番號 Q를 첨가하여 불교는 Q61, 기독교는 Q72로 적용할 수 있겠다.

結 論

이상에서 CC에 있어서의 종교류 변천과정과

전개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류 분류표를 전개하여 제시한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종교류 전개에 있어서 CC는 힌두교 위주의 印度中心으로 전개되어 있어 동양과 서양에 공히 적합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들 분류표는 세계 각국의 諸 宗教를 대등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특정 종교의 경우 분류기호의 길이가 길어 지거나 무시되고 있다. 물론 종교가 인간의 신념과 믿음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다른 믿음을 도외시 하는 경향이 있으나, 宗教現象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종교학의 諸 分野와 세계의 종교들을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야로 이해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2. CC는 종교의 항목 배열에 있어서 宗教의 一般 分類原則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의 분류는 有史以前의 宗教, 원시종교, 古代宗教, 근대종교, 世界宗教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분류체계이다. 이러한 분류원칙은 시간적인 전개원칙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價值中立의이며 종교의 構成要素를 다원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얻어진 유형이다.

3. CC는 19세기 후반에 성립되어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宗教學의 제 분과 즉, 宗教史學, 종교인류학, 宗教社會學, 종교심리학, 종교철학, 宗教現象學, 종교생태학, 比較宗教學 등을 골고루 수용하지 못하고, 일부만 수용하거나 도외시하고 있다.

4. 宗教共通區分の 운영에 있어서 CC의 경우

는 힌두교 중심으로 종교특성구분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종교공통구분의 운영이 일원화 되지 못하고 助記性 면에서도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표 7>과 같이 특정지역 중심에서 벗어나 세계 각국의 諸 宗教를 모두 대등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분류기호를 배정하고, 종교의 항목 배열을 하는데 있어서도 종교의 일반 분류원칙을 존중하여 宗教類를 전개하였으며, 학문으로서의 종교학의 諸 分野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로 개선하였다.

그리고,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종

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宗教共通區分表를 편성하여 助記性도 충분히 살리고, 分類表의 分量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종교공통구분의 전개와 종교류의 전개는 DDC, UDC, KDC, LCC, CC 등 세계의 주요 분류표에 종교류의 類番號만 맨 앞에 첨가하고, 각각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전개하면 직접 적용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DDC, UDC, KDC의 경우는 각각 종교의 類番號 2를 앞에 첨가하고, LCC의 경우는 BL, 그리고 CC의 경우는 Q를 첨가하면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 남태우. LCC, CC, DDC의 語文學區分에 관한 研究.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서울: 中央大學校 大學院, 1991.
- 內田時哉. “佛敎圖書의 分類에 について: 特殊 分類의 一例として.” 圖書館學, 第5號 (1956), pp.195-200.
- 渡邊信一. “S. R. Ranganathan: その 生涯と ライブラリープロフェッションへの 貢獻.” 圖書館學會年報, Vol.31, No.2 (June 1985), pp.78-86.
- 石川良昱. “佛敎에 關する 圖書館資料의 分類에 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第5卷, 第2號 (1957. 3), pp.207-210.
- 유소영. 콜론分類法의 構造原理와 推理性에 關한 研究.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9.
- 李昌洙. 歷史 및 地理類에 대한 組合式分類表의 展開.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서울: 中央大學校 大學院, 1992.
- 정필모. “百進分類法設計.” 圖書館學, 第20輯 (1991. 6), pp.35-63.
- 中村滿次郎. “イスラム文獻의 分類と NDC.” bibliography (天理圖書館報), 第16號 (1960), pp.60-67.
- Batty, David.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32. (New York: Marcel Dekker, 1981), pp.125-146.
- Bliss, Henry Evelyn.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in Libraries*. 2nd ed. New York

- : H. W. Wilson, 1939.
- Dahlberg, Ingetraut. "Major Developments in Classification." in *Advances in Librarian ship*. Vol.7. (New York : Academic Press, 1977), pp.41-103.
- Foskett, A. C. *The Subject Approach to Information*. 4th ed. London : Clive Bingley, 1982.
- Gopinath, M. A. "Ranganathan, Shiyali Ramamrita."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5. (New York : Marcel Dekker, 1978), pp.58-86.
- King, Winston L. "Religion." in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Vol.12. (New York : Macmillan, 1987), pp.282-293.
- Kumar, Krishan. *Theory of Classification*. 2nd Rev. ed. New Delhi : Vikas Publishing House, 1981.
- Mathews, Geraldine Odessa. *The Influence of Ranganathan on Faceted Classification*.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1980.
- Mills, J. and Vanda Broughton. *Bliss Bibliographic Classification*. 2nd ed. London : Butterworth, 1977.
- Neelamegan, A. "Classification, Theory of."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5. (New York : Marcel Dekker, 1971), pp.147-174.
- Partin, Harry B. "Classification of Religion." in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Vol.3. (New York : Macmillan, 1987), pp.527-532.
- Ranganathan, S. R.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3rd ed. New York : Asia Publishing House, 1967.
- Satiya, Mohinder Partap. "Use of Colon Classificatio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Vol. 13, No.2 (1986), pp.88-16.
- Slavens, Thomas P. "Classification Schemes for the Arrangement of the Literature of Protestant Denomination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9, No.4 (Fall 1965), pp.439-442.
- Smart, Ninian. "Religion, Study of." in *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 Macropedia*. 15th ed. Vol.15. (Chicago : Encyclopedia Britannica, 1983.), pp.613-628.

차기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 총회 개최지 안내

제63차

- 일 자 : 1997년 8월 31일~9월 5일
- 개최지 : 덴마크의 코펜하겐
- 주 제 : Libraries and Information for Human Development

제64차

- 일 자 : 1998년 8월 마지막 주
- 개최지 :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제65차

- 개최지 : 태국의 방콕

제66차

- 개최지 : 이스라엘의 예루살렘